

미 수은의 2012년도 경쟁력 보고서 주요 내용

(2013. 9.)

워싱턴 사무소

1. 개요

- 미 수은은 핵심 경쟁력 부분에서 전년과 동일한 “A” 등급을 받았으며, 전반적인 경쟁력 등급에서는 A 등급을 받아 전년의 “A-/B+” 등급에 비해 나은 성적을 거둠.
- 한편, 항공기 금융 부문(Aircraft Financing)은 예년과 달리 대형 항공기 부문과 소형 항공기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“A+” 및 “A” 등급을 받았고(전년도에는 항공기 부문 “A”),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문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“A+”등급을 받음.

2012년 미 수은 경쟁력 평가 결과 요약

부 문	등 급
핵심사업정책 및 업무	A
- Cover Policy & Risk Taking	A-/B+
- 금리	A+
- 위험프리미엄	A
주요 프로그램	A-/B+
- 대형 항공기	A+
- 소형 항공기	A
- PF	A+
- 협조융자	A-/B+
- 환경	A-/B+
- 외화보증	B
- Service	A-/B+
종 합	A

2. 새로운 변화에 주목

- 전통적으로 미 수은의 경쟁력 보고서는 G7 국가 및 신흥시장 국가, 특히 브라질, 중국, 인도("BCI", Brazil, China, India)만을 대상으로 각종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나, 금번부터는 이외에 한국, 스웨덴 등 8개 OECD 국가 ECA의 현황 등을 추가로 기술하고 있음.(p.18)
-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야기된 주요 상업은행들의 소극적인 지원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ECA 직접대출이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자금공급을 가장 많이 늘린 ECA로 미 수은 및 한국의 ECA(당행 및 무보)를 거론하면서 전체 OECD ECA가 2012년중 공급한 신규 중장기 수출신용 제공금액(U\$1,196억)중 미 수은(U\$313억)과 한국의 ECA(U\$226억)가 제공한 금액을 합하면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힘.(p. 19)
- 또한 이러한 직접대출의 급증과 더불어 미 수은의 자본시장차입옵션 (Capital Market Funding Option) 등 비은행 자금원 (Non-Bank Funding Sources)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전례없는 변화들은 결국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질서의 확립에 대한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(p. 142)